

■ 교회소식 ■

1. **장로은퇴·취임식** : 오늘 오후 1:30 장로 은퇴·취임식이 있습니다. 은퇴 장로 : 한완식, 취임 장로 : 광권희 장원호
2.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오늘 12:3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3. **기획위원회** : 기획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30 교회에서 있습니다.
4. **부원모집** : 재무부에서 봉사할 교우를 모집합니다. 봉사하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주세요.
5. **부활절유정란** : 생협에서 황토농장 무항생제 부활절 유정란 주문 예약을 받습니다. (유정란 1판(30알):11,000원/ 구운 유정란 (30알):13,500원)
6. **신앙실천** :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있는 실천사항들을 지키도록 합니다.
* 식사와 떡과 커피 대접 : 한완식 광권희 장원호

다음 주 설교 본문 요 11:4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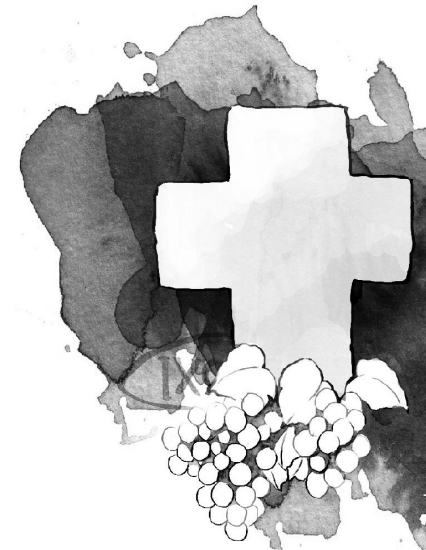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윤성종	오자영

1부 영접위원	최미자	헌금위원	진정숙
3월 2부 영접위원	박홍재 박석희	이민범 신정훈 서정순 조항미	
2부 헌금위원		김정민 권미숙	

오늘 식당 봉사 최현옥 김신실 안상숙 공재랑 유은정 이순용 임주빈 이주경
 다음주식당봉사 최경미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이오복 이현정 조장형 박재영
 오늘설거지봉사 2여선교회(61-6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3여선교회(56-60)
 커피 판매 봉사 6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허호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2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X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르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17. 사랑의 하나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새로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따스한 봄볕을 은총처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봄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니 마음 깊은 곳까지 밝아지는 느낌입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은총의 햇살 아래 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잇대어 받은 꽃으로 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지난겨울을 참으로 힘들게 보냈습니다. 이제 새 봄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찢기고 상한 곳이 많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나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마태5:10 인도자
- ▲ 교 독 문 125. 사순절(2)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조항범 권사
- 2부응 답 송 찬양대
- 2부찬 양 90.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 함께
- ▲ 성경봉독 마 13:54-58 I. 인도자
II. 이성범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있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권미정 김용태 이순정 유경순 박석희 방준 원용일 이미희 이재문 조경자 최은미	강신철 김광일 박정숙 김지호 남명진 조항미 백요한 최현석 이범석 장동훈 조관행 최현	이혜부 김인석 전혜리 김애정 박숙미 서수진 유정우 정은선 홍선희 하현철	강요한 김명희 김지현 남선옥 박시내 서이순 유중희 장영숙 조순덕 최성애	원은성 김재홍 김진규 노진래 박옥식 성지현 윤이왕 정두리 조영순 한봉	강인식 김승희 김철수 김희철 박재영 송형운 김송상 정연희 최미경 홍순	식현영 정영남 최정민 최현미 김윤우 정재기 최홍	정수길 김영복 최정림 김윤이 정우상 정재기 최홍	속진길 김태은 박다민 최상욱 김정우 김계원 최영민 안홍	곽정자 김숙화 김태은 박준민 최상욱 김윤이 정재기 최홍	구명길 김태현 박명제 최광희 최해성 구성실 이인성 양순옥 최명1	자길성 김태현 박명제 최광희 최해성 구성실 이인성 양순옥 최명1	국영혜 최중훈 김서미 방수명 왕수천 오송경 정민영 최윤화
---	---	--	--	---	---	--	--	---	---	---	---	--

감사헌금

강인식 김필순 송동준 이광재 정재기 추은총	김정숙 남명진 김진경 이범석 정학성 하현일	김금순 김애정 송정근 류정욱 김현숙 김광우	김인걸 문복순 이소선 이상도 전현선 한상수	문영혜 문홍일 신다현 이순이 조두리 남해린	김재흥 이미혜 안성호 이우원 오연훈 홍성식	최희영 박명제 김희숙 옥귀희 조혜윤 이유리	김중수 서미연 유연양 김임선 최영민 무명26	이순정 방경선 윤정숙 신현속 이상미	김철수 서효진 구성실 정복순 최형서
--	--	--	--	--	--	--	---	---------------------------------	---------------------------------

생일감사헌금 이선화 김경한 정에서 정종삼 조항미
녹색꿈헌금 김향자 노진래 최형경 윤미경 윤수진 임철희 정효자 무명4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장로 은퇴·취임식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f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춘설

- 정지용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들어
바로 초하로 아츰
새삼스레 눈이 덮인 뒤편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 순 돌고
옴짓 아니기던 고기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햇웃=솜웃)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 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김 린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말 씬 익숙함을 넘어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484.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사십시오. 판단과 정죄에 익숙해진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편하고 익숙한 것만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새롭고 낯선 것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편견으로 굳어진 닫힌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십자가의 길 : 삶은 모순임을 인식하라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는 ‘십자가의 길’을 둘러싼 옛 전통이 있다. 각 상像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은 여정의 주요 지점을 나타낸다. 이 상들은 교구 교회의 복도를 따라 스테인드글라스나 목판에 그려져 있다. 신자들은 각 그림이 나타내는 특별한 통찰에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걷고, 멈추고, 기도한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쓰러지시는 지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지점, 예수님이 어머니를 만나시는 지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지점이 있다. 각 지점은 보는 눈과 들을 귀를 가진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와 힘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또 다른 십자가의 길이 있는 듯하다. 그것은 외적인 여정의 발걸음을 나타내는 단계들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을 향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내면의 움직임이 나타내는 단계들이다. 나는 나의 내적인 경험에서 나온 다섯 가지 순간에 대해 쓰려 한다. 나는 그것을 인식, 저항, 수용, 시인, 해방이라 부른다. ...

첫째는 인식이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간 경험의 핵심은 일관성이나 혼돈이 아니라 모순임을 인식하라고 요청한다. 20세기에 우리는 일관성의 주장, 역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환상,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서 나온 거짓 희망에 미혹을 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몇몇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신빙성을 잃자 우리는 여러 카오스 이론들의 공격을 받았고, 또 만사를 통제 불능의 세력들과 고유한 의미가 없는 사건들의 무작위한 놀이로 축소시키는 절망의 예언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십자가는 순진한 희망 너머에, 무의미한 절망 너머에, 우리 삶을 사로잡는 역동적인 모순의 구조가 있음을 상징한다. 십자가는 세상이 하나님과 어떻게 모순되는지를 보여 준다. 즉, 우리는 빛과 진리와 선이 나타나기를 갈망하지만, 그것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 이 세상

은 두려움이 커져 그 성육신을 죽일 것이다. 다른 한편,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과 어떻게 모순되는지를 보여 준다. 세상은 자꾸 No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절망에서 희망을, 죽음에서 생명을 끌어 내시는 영원한 예스Yes로 현존하신다.

... 현실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란, 세상이 획일적인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만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반反생명의 흐름이 아무리 강해도 그 흐름에 맞서서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처럼 맞서는 현상이 수적으로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그 우월한 실재를 인식하고 그 실재를 풍성하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변혁을 초래한다.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당신이 일단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순간의 힘으로 살 수 있고 그것을 배가 시킬 수 있다.

...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쟁에 맞서 평화에 헌신하는 것은 얼마나 연약한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바보 같은 곳에 서 있음으로써 사회 진화의 흐름에 반박할 수 있다. 우리는 모순을 살아냄으로써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에 참여하게 된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그의 고전적 작품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능력과 소망에 색다른 이름을 붙였다. 그는 십자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의문을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썼다. 그러나 나처럼, 의문을 모순으로 대체하면 우리는 릴케를 통해 십자가 모양의 생활 방식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하라. ... 모순 자체를 사랑하려고 애쓰라. ... 그대가 그렇게 살 수 없어서 얻을 수 없는 해결책, 지금 그 해결책을 찾지 말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살아내는 일이다. 지금 모순을 살아내라. 그러면 아마도 서서히 그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먼 훗날 해결책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 파커 파머, 「역설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아바서원) 중에서